



3면

여름철 자연재난 선제대응

# 전주매일

2024년 3월 11일 월요일 (음 2월 2일) 제3461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 “비상진료대책 가동 만전”

### 김관영 도지사, “도민 생명 최우선… 의사 집단행동 장기화 가능성 염두에 뒤야” 속도감 있는 늘봄학교 정착 · 교육발전특구 준비 · 바이오특화단지 대응 등 강조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지난 8일 간부회의에서 도민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비상진료대책 가동에 총력을 다할 것을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의사 집단행동과 관련해 “도민 불편이 가중되고 의료현장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면서, “장기화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선제적 대응체계를 갖춰야 한다. 병원을 떠난 의료진이 하루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설득하면서 비상진료대책 가동에 만전을 기하자”고 말했다.  
이어 “지난달 27일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17개 시도지사와 교육감이 범국가적 돌봄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면서, “우리 학부모와 아이들 모두

만족할 만한 질 높은 교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교육청과 적극 소통하고, 늘봄학교가 빠르게 정착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지난달 28일 전북자치도와 5개 시군이 1차 공모에 선정된 교육발전특구와 관련해 “교육특구에 참여할 학교와 기업, 도가 협력해 우리 미래 세대에 새로운 기회의 무대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정교하게 준비할 것”을 강조했다.  
김 지사는 바이오 특화단지 선정을 위해 이차전지 특화단지 선정 때처럼 치밀한 전략으로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1%의 가능성이라도 있으면

적극적으로 도전하는 도전경성의 각오로 임하자”고 힘주어 말했다.  
아울러 지난 6일부터 7일까지 진행된 전북자치도회의의 도정질문 지적사항에 대해 제기된 지적들에 대한 조치를 철저히 하고, 대책을 세워 도정 혁신의 기회로 삼을 것을 지시했다.  
끝으로 중앙정부에서 진행 중인 대통령 업무보고 관련 각 부처의 정부정책방향을 면밀히 검토해 우리 발전의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발표된 정책방향은 각 조항별 세세하게 분석해 해당부처 담당부서와 소통하며 전북자치도의 대응전략을 각 실국 차원에서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다. /김재훈 기자



세계여성의 날인 지난 8일, 김관영 도지사와 전정희 전북여성가족재단 원장, 김영일 전북농협 본부장 등이 여성친화기업인 전주 한살이패럴을 찾아 여성 근로자들의 적극적인 사회 참여를 응원하고 있다.

## “더 공정하고 평등한 사회 구현 힘 모으자”

### 3월 8일 '제116주년 세계여성의 날' 전북자치도 · 전북여성가족재단 · 전북농협 등 '여성친화기업' 한살이패럴 찾아 기념식 개최

전북특별자치도(도지사 김관영)와 전북여성가족재단(원장 전정희)은 지난 8일 김관영 도지사와 전정희 원장, 전북농협 김영일 본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여성친화기업인 한살이패럴을 찾아 116주년 세계여성의 날 기념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기념식에서 한살이패럴 박연옥 대표 표는 양성평등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성평등 경영선언문을 낭독했으며 농협 김영일 전북본부장이 생존권을 상징하는 ‘뽕’과, 참정권을 상징하는 ‘꽃’을 전달했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이날 기념식에서 이어 공정을 돌며 여성근로자들과 일일이 손을 맞잡고 “더 공정하고 평등한 사회 구현을 위해

여성들이 적극적으로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참여에 나서는데 함께 힘을 모으자”고 격려했다.  
김 지사는 또 “앞으로도 양성평등 인식개선 및 여성 직업훈련 교육 등 도 차원의 양성평등 정책을 강화해 여성의 사회적 지위 향상과 경제적 자립기반 마련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전정희 전북여성가족재단 원장은 “도민의 양성평등 의식 제고와 성평등한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계층별·세대별 양성평등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행복한 전북특별자치도를 만들기 위해 도내 기관, 기업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4년 설립된 한살이패럴은 여성근로자가 95%(62명 중 60명) 이상을 차지하며, 이 중 절반 이상이 결혼이주여성으로 고용유지를 포함한 높은 여성고용 우수기업이다.  
특히, 2021년 도와 여성친화기업 협약을 통해 인턴지원 사업 등을 추진했고, 가족친화인증기업 컨설팅을 통해 2023년에는 가족친화인증기업으로 인증받았다.  
또 이날 세계 여성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전북여성가족재단과 전북자치도문화관광재단에서 각각 릴레이로 여성 근로자와 뜻깊은 기념행사를 이어갔다.  
한편, 세계여성의 날은 1908년 3월 8일 미국의 여성 노동자들이 근로여건 개선과 참정권 등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인 것에서 시작됐다. 1977년 유엔에서 3월 8일을 세계 여성의 날로 공식 지정하고, 우리나라는 2018년 법정기념일로 정했다. /장은성기자 · 김재훈기자

### 전북투어패스 신규상품 '카페 플러스권' 오늘 출시

### 제휴시설 없던 카페 무료 이용

전북특별자치도가 관광지 외에 카페를 추가로 무료 이용할 수 있는 전북투어패스 신규 상품 '전북투어패스 카페 플러스권'을 11일 출시한다.  
'전북투어패스 카페 플러스권'은 가격이 1만2,900원으로 기존 통합이용권(5,900원/매)으로 누릴 수 있던 70여개의 자유이용시설 외에, 추가로 제휴시설에 없던 카페까지 무료 이용할 수 있는 신규 상품이다.  
이는 젊은층의 카페투어, 빵지순례 등 개인취향과 관심사에 맞춘 여행과 경험을 선호하는 트렌드를 고려한 것으로, 구매 후 지정기간 동안 도내 관광시설을 무제한으로 이용하는 통합이용권형의 장점은 그대로 가져가면서 더불어 젊은층의 수요까지 충족시키는 한층 업그레이드 된 상품이라고 전북자치도는 설명했다.  
한편, 카페 플러스권에 대한 자세한 내용 및 구매는 전북투어패스 홈페이지(http://www.tourpass.kr/)에서 확인 가능하며, 세부사항은 전북투어패스 ☎(1522-2089)로 문의하면 된다. /김재훈기자

## 전북자치도 복지기동대 구성 완료

### 243개 읍면동 2377명... 사회취약계층 지원 활동 나서

전북특별자치도는 도내 14개 시군(243개 읍면동 2,377명) 복지기동대 구성을 완료하고 본격적으로 노인, 장애인, 저소득 가정 등 사회취약계층의 일상생활 불편 해소 및 생활 안정 지원에 나섰다.  
'전북특별자치도 복지기동대'는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사회 취약계층의 소규모 긴급수리(전등·콘센트 등), 주거환경정비(청소·도배 등), 안전점검(전기·가스 등) 등 일상생활 불편 사항 개선과, 도내 저소득 위기가구 등에 대한 생계 안정 지원 등을 지역 사회 공동체와 함께 협업해 지원하는 민관 협력 복지 안전망이다.  
도내 14개 시군 243개 전 읍면동 단위로 각 지역 현황에 맞게 마을 이·통장, 새마을회·부녀회, 전기·가스·주택 등 설비종사자,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봉사활동을 희망하는 자원봉사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읍면동당 5명 내지 20명 이내의 규모로 편성됐다.  
특히, 노인 및 장애인 인구가 많은 전북지역 특성상 전등 교체, 전자제품 오작동 등 일상에서 발생하는 단순한 생활불편 문제를 즉시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 읍면동 사무소에 전화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이와 같은 소규모 수리 및 주거환경 개선은 가구당 총 150만원 범위내에서 해당지역 복지기동대원이 출동해 수리·개선·점검해준다.  
또한, 질병·실업 등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를 대상으로 각 시군에서 인정하는 저소득 위기가구에 대해서는 가구당 최대 70만원 범위 내에서 생계비·의료비 등의 생활안정 지원금도 지급한다.  
아울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회복지관 등 지역 내 복지서비스 제공기관과 유기적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민간 자원을 활용한 자발적인 후원·기부 활동도 활성화하는 등 지역의 든든한 생활밀착형 복지안전망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박장석 전북특별자치도 사회복지과장은 “전북특별자치도 복지기동대는 시군·읍면동 등 지역의 복지 문제를 해당 지역사회의 공동체 구성원이 나서서 자발적으로 해결함으로써 주민들의 복지 체감도를 제고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함으로써 함께 누리는 행복복지 전북을 만드는 데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 남원시, 농식품부 '곤충산업화 지원' 공모 선정

### 지역 곤충산업 육성 '탄력'

전북특별자치도는 곤충의 생산·가공시설 등 산업화 기반 마련을 위해 추진하는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인 '곤충산업화지원' 사업에 남원시가 선

정돼 지역 곤충산업 육성에 탄력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농식품부 공모사업은 작년 11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신청된 4개소에 대해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 서류심사와 발표 평가를 거쳐 지난 4

일 최종 4팀 선정됐다.  
곤충산업화지원사업(10억원)은 남원시 팜브라운을 중심으로 선도 곤충사육 6개 농가와 협력해 균일한 먹이원을 대량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생산·가공·유통 구조를 일원화할 수 있도록 계열화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김재훈기자 · 남원=김기두기자

## 고향사랑기부제

# 진안에

## 기부하고 혜택받고!

### 고향에 사랑하는 마음을 보내세요

**10만원을 기부하면  
13만원을 돌려드립니다.**  
※ 세액공제 10만원, 답례품 3만원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

- 10만원 이하 전액 공제
- 10만원 초과 분 16.5% 추가 공제
- ※ 1인당 연간 500만원 이내(법인, 단체 기부 불가)

**지역특산물 등 진안의 마음을 담은 답례품 지급**

- 기부액의 30%
- 진안군 답례품 : 돼지고기, 홍삼, 수삼(인삼), 사과, 진안홍삼사과 이용권, 승마체험 이용권, 진안고원물 온라인 상품권 등 34종

문의 : 진안군청 기획홍보실 인구활력팀 063-430-2830

**기부 방법**

- 온라인 : 고향사랑e음 (기부금납부, 답례품 선택, 세액공제 원스톱 시스템)
- 오프라인 : NH농협은행 창구(전국 모든 지점)